

기획특집

기획특집 ① 가족의 발명
최예빈

기획특집 ② 초고령화 고독사회 초연결 주거모델로 극복
한정민 |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 이사

비혈연 가족



BUSAN GENDER EQUALITY & FAMILY,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여성우리 2025. 12. Vol.74

발행일 2025년 12월 12일 통권 제74호 비매품
 발행처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56(금곡동)
 Tel. 051)330-3400 Fax. 051)363-3759
<http://www.bgli.re.kr>
 발행인 윤지영
 편집위원 배정애, 양혜경, 유순희, 이국환,
 김보름, 한혜림
 편집자 김민정
 디자인/인쇄 글로브임팩트 Tel. 051-710-4008

본 정책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진의 의견으로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CONTENTS



04	<u>여우단상</u> 비혈연 가족 :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한 소고 정다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변호사	26	<u>여우문화 리뷰</u> 그렇게 가족이 된다 정가은 영화비평가
07	<u>기획특집 ①</u> 가족의 발명 최예빈	30	<u>여우's 일상</u> 치코리타 FS 창단 계기 이하정 치코리타 FS
10	<u>기획특집 ②</u> 초고령화 고독사회 초연결 주거모델로 극복 - 부산진구케어안심주택 한정민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 이사	34	<u>부산 마을 탐방기</u> 우리 영화의 한 장면이 된, 부산 모퉁이 극장 배슬기
14	<u>이슈</u> 가족 너머의 온기: 비혈연 돌봄·보호체계의 가능성 탐색 이재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36	<u>부산의 herstory</u> 여성 문화예술인, 작가, 활동가 인터뷰 조서연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초빙교수
19	<u>현장목소리 ①</u> 보호 종료 아동 이진희 몽실커피 대표	40	<u>News</u>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활동소식
21	<u>현장목소리 ②</u> 가족을 넘어, 함께 애도하는 시민들 -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 - 임기현 부산반빈곤센터	45	<u>News</u> 정책 Check : 국내 정책 동향
24	<u>현장목소리 ③</u> 매일이 감동인 아이 박미은 사회복지사		

비혈연 가족 :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한 소고

정다영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변호사



현대 사회에서 가족개념의 변화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는 전통적인 혈연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친밀한 친구 등 개인의 선택에 기반한 동거가족, 혼인신고 없이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실혼 관계, 입양이나 재혼으로 이루어진 가족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가 현실에서 증가하고 있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

우리 법제는 전통적으로 혈연관계를 가족법의 중심에 두어 왔다. 민법(이하 법령 생략)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제767조). 여기서 혈족이라 함은 직계혈족과 직계비속 및 방계혈족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제768조). 한편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가리킨다(제769조).

민법은 가족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가족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이에 해당되며,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으로 한다(제779조).

혈연에 대한 법적 보호

민법상 친족관계와 상속관계는 혈연을 기본 전제로 설계되었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고(제974조), 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제1000조, 다만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상속인인 경우, 그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24. 3. 28.자 2020헌바494 전원합의체 결정).

사회적 가족과 기능 중심의 재구성

가족법의 현대적 재개념화는 가족 형태보다 기능과 선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가족을 단순한 법적 형태(혼인·혈연 중심)로 규정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가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공동체와 관계(돌봄·부양, 정서적 지원, 경제적 협력 등)를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주장이 여러 연구에서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혼인, 입양 등 법적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상호 돌봄·지지·정서적 유대 등 가족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관계 및 공동체로서 사회적 가족에 대한 논의도 전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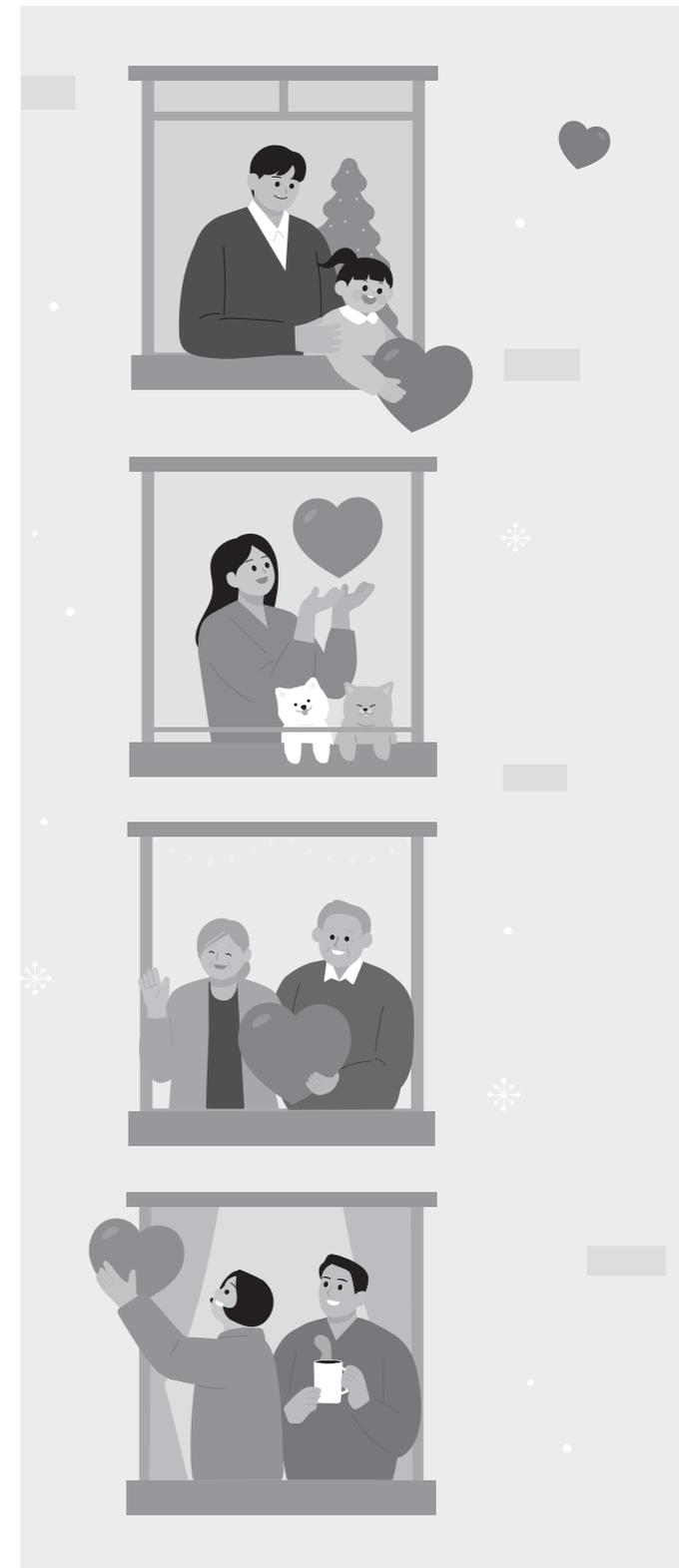
이러한 재개념화는 사회적 포용성 강화, 차별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특히 고령사회에서 독거노인 증가, 가족 중심 부양 기능 약화 현상을 고려할 때, 비혈연 가족의 상호 돌봄 기능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입양에 의한 비혈연 가족

입양은 현재 우리 법제에서 혈연 없는 부모-자녀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가장 확립된 제도이다.

일반양자의 경우, 입양된 때부터 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제882조의2), 이에 따라 양부모의 혈족 및 인척과도 친족관계가 형성된다.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는 부양관계, 상속관계, 친권 관계가 모두 발생한다.

친양자 입양제도는 2008년 민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더욱 강화된 보호를 제공한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모두 종료되고, 양자는 완전한 친생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취득한다(제908조의3). 이는 비혈연 가족이 법적으로 혈연 가족과 완전히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하는 규정이다.



사실혼 관계에 의한 비혈연 가족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다르지만,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는 관계이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둘째,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부양 및 협조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일상가사대리권도 인정된다. 또한 사실혼이 파기될 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 청구도 인정되는 등 일정한 법적 보호가 존재한다.

그러나 사실혼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연고자로서 특별한 경우에만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 뿐,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갖지 못한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자가 되어 아버지의 친생추정을 받지 못하므로,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근의 추세

최근 혼인신고와 같은 법적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친밀한 관계로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법제에서 이들은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제도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와 실질적 생활관계, 즉 대상자가 직장가입자와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에 놓고 판단하는바,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동성동반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 혹은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도한 바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러한 동향은 우리 법제가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의 동향

유엔 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유럽인권협약은 가족의 형태와 무관하게 차별 없이 평등한 권리 보호를 명시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동성 커플, 사실혼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판례들을 다수 축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책임·돌봄·친밀성이라는 가족의 기능적 요소에 기반해 가족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족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2005년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동성커플·다부모가족·사실혼 등 비혈연 가족을 법적으로 적극 보호하고 있으며, 미국은 2015년 연방대법원 판례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뒤, 주별 가족법 개정을 통해 다부모 가족, 비혈연 공동체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의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혈연 가족 법제의 전망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비혈연 가족 형태를 경험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혼인·혈연 중심 가족관계를 넘어서 사회적 가족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화와 가족 부양 기능 약화, 가족 다양성 인정 확대라는 사회적 현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비혈연 가족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보호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비혈연 가족 커뮤니티
가족의 발명

최예빈

“친구한테 하는 거 반만큼만 가족한테 해봐.”

엄마는 내가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부터 종종 이런 불평을 했다. 딸이 가족보다 친구를 더 편하게 느낀다는 것을 감지 하면서 서운함을 표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난 친구들에게도 그다지 잘하는 편은 아니다. 만나서 재미있게 놀다가도 집에 가고 싶어지면 귀가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안부를 챙기거나 살가운 연락을 꾸준히 이어가지도 못한다. 생일 같은 기념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상대를 서운하게 만들 때도 많다. 그러나 내겐 서로를 대안가족이라 여기며 관계를 깊이 맺은 친구들이 몇 있다. 여기에 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결혼과 출산 없이 가족을 만드는 비법을 써 보려고 한다.

톨스토이 선배님은 1878년에 벌써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으로 불행하다'는 명문을 남겼다. 우리들의 원가정 또한 한국 평균 수준으로 저마다 불우하여, 오은영 선생님 보시기에 썩 훌륭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유년기에 가족 안에서 겪은 상처와 결핍 탓일까? 나는 이랑의 노래 <가족을 찾아서>를 들으며 우는 성인이 되어, 바깥에서 이상적인 부부를 만날 때마다 '이 사람들의 딸이 되면 어떨까?' 상상하는 이상한 습관을 들였다.

어느 날 그렇게 속으로만 하던 망상을 입밖으로 냈다. 내게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연상의 친구가 있는데, 그는 남자친구와 18년째 같이 살면서 혼인신고나 결혼식은 올리지 않으며 지내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 친구와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친구의 남자친구와도 사이가 좁혀졌고, 나는 그들 커플과 자주 어울리며 이들의 나의 부모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키웠다. 여느 때처럼 친구를 만나 사는 이야기를 듣던 어느 날, 그들이 너무 좋아진 나는 불쑥 물었다.

“나 입양하면 안 돼?”

그날부터 내겐 새로운 부모가 생겼다. 물론 그들이 나를 법적으로 입양한 건 아니다. 한국에서 성인 입양을 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 외에도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글썄, 친부모에게 입양 허락 받기란 적어도 내겐 비현실적인 조건이다. 나의 혈연 가족이 '비혈연 가족'이 어떤 개념인지 알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었다면, 나는 굳이 비혈연 가족을 찾아 나서지 않았을 것 같다.

우리가 맺은 비공식적 비혈연 가족은 점점 가계가 넓어졌다. 가까웠던 서로 다른 집단의 친구들이 몇 년에 걸쳐 서로를 알아가고 섞이며 강한 유대와 소속감을 갖게 되었고, 내가 새 부모로 삼은 이들 커플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라 할 만한 것이

NON-BIOLOGICAL FAMILIES TODAY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십 몇 년째 법률혼 없이 같이 사는 이성애 커플과 여섯 명의 딸들로 이루어진 비정상 대가족. 우리는 이제 서로를 호부호형 하며 지낸다. 법적으로 엮일 수 있는 제도가 없기에 어떠한 사회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분명한 돌봄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다.

워낙 대가족이라 모두가 다 같이 한 집에 거주하고 있진 않지만, 거주지를 구할 때는 새 부모님 댁에서 차로 15분이 안 걸리는 곳으로 집을 정한다. 나는 원가족, 특히 친부와의 지속적인 갈등에 시달리다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시간과 공간이 간절히 필요했다.

웬만해선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두문불출하는 날들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나의 새-엄마-친구는 일주일에 꼭 한 번씩 내가 잘 있나 보러 와주었고, 식재료며 반찬들을 갖다 주며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사하는 날에도, 집 구조를 재배치한다고 꾸덕거리 하는 날에도 새 엄마는 와서 함께 바닥을 닦고 가구를 옮겨 주었다. 생일이면 미역국을 끓여 주고, 몸이 아프다고 하면 자기가 아는 가장 잘 듣는 약을 사다 주고, 마음에 상처를 입어 취약한 날이면 밤새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들어 주고 다독겨려 주었다.

새-아빠-친구 또한 든든한 지지대가 돼 주었다. 목수일을 하고 있는 그는 쉬는 날에 내 책장을 짜주고, 전등을 갈아주거나, 화장실 배수구를 고쳐주는 등 당신이 필요한 모든 일을 서슴없이 해 준다. 여름 휴가철엔 우리를 다 태우고 산으로 바다로 놀러가고, 특하면 불려내 맛있는 걸 사준다. 자신은 입장하지도 않을 페스티벌에 딸들을 데려다준다고 왕복 8시간을 운전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 귀찮게 하는가 하면, 명절에 얼굴 안 비춘다고 서운해 하기도 한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공동체이기도 하다. 식음료를 판매하는 업장을 운영하는 새-엄마-친구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고 생계에 난항을 겪는 딸들을 돌아가며 고용한다. 타지에 사는 딸들이 일하러 오면 기꺼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방 한 칸을 내주며 몇 달간 같이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살 때면 네 돈 내 돈 하는 의미 없이 살림을 함께 꾸린다.

딸 역할을 맡고 있는 나의 자매-친구들의 터전은 서울 대전 부산 등 전국에 흩어져 있지만, 집안의 대소사라 할 만한 행사(예: 누군가의 졸업, 누군가의 공연, 누군가의 이사 등)가 있을 때마다 우리 가족들은 꼭 한 자리에 모여 기쁨과 슬픔을 나눈다.

정서적·물리적 돌봄을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서로의 신변을 업데이트하며, 누군가 보호자 연락처를 물으면 서로의 번호를 대는데도 우리가 사는 방식은 한때의 장난이나 농담처럼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일 수 있을까?

현행 민법은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가족을 정의한다. 그러나 그것은 씨족사회에나 걸맞은 한정된 범위다. 가족의 뜻은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있다. 2020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조사에서 '가족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이 1위로 꼽은 항목은 '강한 정서적 유대를 갖는 것'이었다. '법적인 혼인이나 혈연관계'는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의 온타리오 인권법은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가족을 상황으로 정의한다. 돌봄, 책임, 계약 관계에 있는 부모-자녀 '같은' 관계. 물론 이 안에는 다양한 성소수자 가족도 포함된다. 서로의 미래에 상대가 있을 것이라는 동반자 의식, 돌봄 의지와 거기서 발생하는 상호 신뢰,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사람이 가족에게 구하는 것은 결국 다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한 명의 고유한 개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어울려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이런 것들을 바라기 때문이 아닐까? 혈연관계로 가족을 규정하는 한국의 법률은 이러한 가장 인간적인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가족을 이를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전통적 법률혼을 넘어선 새로운 시민결합 제도가 시급한 이유다.

한편으론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도 존재한다. 가족의 규범적 정의가 어떻게 변화하든, 내집단 편향을 강화하고 외집단을 폄하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을 우선시하는 '가족주의' 자체를 해체하기는 어려울 지도 모른다. 신뢰의 범위가 주로 가족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한국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내가 마음 맞는 친구들을 가족이라는 관계로 편입시키고 비혈연 가족을 이룬 것도 '가족주의'와 완전히 무관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혈연의 바깥에서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망을 찾고, 기꺼이 가족이라 이름 붙이고 싶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일은 놀라운 안정을 제공하고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나 가까워지고,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일. 그리하여 타인을 믿고 의지하여 서로 보살펴주게 되는 일. 가족이 되는 일이란 그렇게 이루어진다. 여기에 결혼이나 출산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다.

**혈연으로 한정짓는 편협한 가족의 정의를 버리고,
더 넓은 범위의 가족을 인정하며 사회적 신뢰의 반경을 넓히길 바란다.**

비혈연 가족 커뮤니티

초고령화 고독사회, 초연결 주거모델로 극복 부산진구케어안심주택

한정민 |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 이사



“성님,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까요?”

어스름이 깔리면 어르신 몇 분이 삼삼오오 부엌에 모여 저녁 밥을 짓는다. 함께 둘러앉은 식탁에는 도란도란 이야기 꽃이 피어 오른다.

한때 집집마다 굴뚝에 밥 짓는 연기가 올라오던 시절이 있었다. 특별한 찬도 아닌데 이웃 집에 건네며 서로의 정을 나누던 시절.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울고 웃던 우리네 옛 살아가 그대로 펼쳐지는 곳이 있으니 바로 부산진구 케어안심주택이다.

부산진구 케어안심주택은 '정든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이라는 가치 아래 주거약자 및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주거, 보건,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부산진구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유주택을 말한다.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열악한 주거환경, 건강, 식사, 고립 등의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노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거 형태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가 주택을 제공하고, 입주 노인들이 상호협력하며, 운영기관이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운영되는 부산진구형 케어안심주택은 '초고령화 고독사회와 노후 비용'이라는 시대적 과오를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노인주거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초읍도란도란하우스

01



안창도란도란하우스

02



따로또같이주택

03



현재 부산진구 내에 운영되고 있는 주택은 총 3곳으로 초읍도란도란하우스, 안창도란도란하우스, 초읍따로또같이주택이다. 이 세 주택은 입주자들 간의 시너지, 주택의 구조, 지역적 특성 등이 버무려져 각각의 특색있는 장점을 자랑하고 있다.

초읍도란도란하우스는 부산진구 초읍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개소한 4층 건물의 공유주택이다. 1·2층 지역사회 커뮤니티실, 3·4층 거주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남성, 여성 어르신들이 층간 분리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다. 주기적인 자치회를 통해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지역사회 커뮤니티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주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 주택은 유난히 구성원들 간의 살뜰한 보살핌이 넘친다. 이미

사회적 가족 공동체로 형성된 것이다. 함께 식사를 하며, 함께 청소를 한다. 늦게 귀가하는 구성원이 있으면 안부를 확인하고 먼 친척집 나들이에서 받아온 과일을 나눈다. 서로의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단단한 삶의 안전망을 자랑하고 있다.



초읍도란도란하우스 반사회



초읍도란도란하우스 기억력평방교실



사회적가족만들기 노래대회



사회적가족만들기 에코백 만들기

안창도란도란하우스는 2023년 6월에 개소하여 범천2동 안창마을에 자리하고 있으며 1·2층 주민협의회의 마을공간, 3·4층 거주공간으로 여성 어르신 8분이 생활하는 노인공유주택이다. 특히 안창마을은 마을공동체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에 입주 어르신들도 한데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지역 돌봄망이 확장되었다. 지역교회들이 어르신들의 소소한 형편을 돌아보고, 마을공동체와 함께 김장을 담그며 월동준비를 하고, 인근 복지관을 이용하여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한다.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연결성으로 어르신들의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해진다.



안창도란도란하우스 밥상공동체



안창도란도란하우스 주민함께 원예프로그램



사회적가족만들기 세대통합 게임하기



안창도란도란하우스 건강스트레칭

초읍따로또같이주택은 LH공공임대아파트 형태로, 2022년 5월부터 41가구가 입주한 고령자 커뮤니티케어형 주택이다. 각 세대는 개인별 독립된 주거 공간에서 따로 생활하지만 커뮤니티 공간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공유 공간에서는 실버영화, 건강체조, 공예품 만들기 등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입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이 주택의 특징은 독립성과 공동체 관계의 균형이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면서도 필요할 때 옆집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거환경의 구조가 많은 이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옛 적, 빨래터에 모여든 아낙네들처럼 공동 빨래방에서 수다 보따리를 풀기도 하고, 이웃집의 택배 상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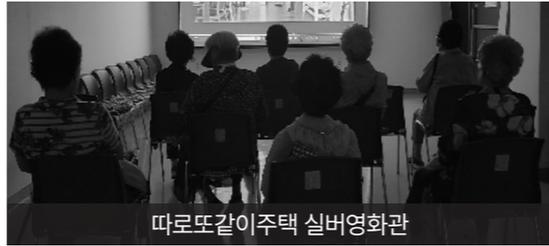
문 앞에 방치되어 있으면 문을 두드려 근황을 확인하기도 한다. 이 주택은 공공임대 기반의 노인공유주택 모델로서 독립적인 생활과 관계의 연결이 조화를 이루는 사례로 손꼽힌다.



케어안심주택 어버이날 기념행사



따로또같이주택 주민과함께 건강체조



따로또같이주택 실버영화관



따로또같이주택 커뮤니티센터 한가족 잔치 진행

2024년부터 부산진구 케어안심주택 3개소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은 제1 운영 원칙을 '연결성'에 두었다. 각 주택의 구성원들 간의 연결, 각 주택들 간의 연결로 촘촘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최근 사회적 위기로 다가온 고독과 고립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노인 특유의 돌발 및 위기상황에의 선제적 개입은 말할 것도 없다.



케어안심주택 어버이날 기념행사



케어안심주택 송년의 밤 진행



케어안심주택 봄나들이



케어안심주택 설명절 상차림 초대



케어안심주택 가을나들이

각 주택의 구성원들 간의 연합과 소통은 앞서 각 주택의 특성을 소개한 내용으로 충분할 것이다. 각 주택들 간의 연결을 위해 관내의 가족지원센터와 함께 매월 도란도란 하우스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세대통합 '사회적 가족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회적 아들, 며느리, 손주들을 만나 세대 간 정서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3개 주택 통합 연결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소품과 잔치들이

펼쳐진다. 봄, 가을이면 들로 산으로 나들이를 가고, 어버이 날에는 한자리에 모여 축하의 자리를 가진다. 설, 추석에는 직원과 봉사자, 이웃이 함께 모여 명절 음식을 먹으며 서로 간 덕담을 나눈다.

물론 운영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2년 지역 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종료로 인한 예산 감소로 사업 전반의 조정 및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해당 관청은 어르신들의 '거주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주택 3개소를 하나의 운영기관이 통합 관리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모색하였다. 운영 법인은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운영기관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예산의 공백을 뛰어넘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다.

노인인구 1000만명의 시대. 통계청이 내놓은 '2025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1만 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기록했다. 아울러 한때 낭만의 단어로 여겨진 '고독(孤獨)'은 더 이상 사색과 성찰의 계기가 아니라,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2018년 영국에서 고독부를 신설하고, 2021년 일본에서 고독상 고독고립 대책 담당 대신을 임명하는 것은 고독과 고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의 고군분투로 보인다.

"예전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낼 때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런 저런 일상을 함께하는 동무가 있어서 참 좋아요. 사람 사는 거 같아요."라는 어느 입주 어르신의 소회는 부산진구 케어안심주택이 초연결의 공동체로서 초고령화 고독사회의 문제에 대한 설루션이 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80년 평생을 혈연가족이 없이 비혼으로 살아오신 남성 어르신이 자녀와 함께 사는 다른 가족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크게 웃으실 때 가장 크게 보람을 느낀다는 운영 기관 종사자의 말을 통해 부산진구 케어안심주택이 사람과 사람이 함께할 때의 온기가 이 집을 가득 메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된다.

가족너머의 온기 : 비혈연 돌봄·보호체계가능성 탐색¹⁾

이채정 |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 사회의 돌봄·보호체계는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다. 그러나 급속한 가족구조 변화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이러한 전통적 가족 중심 돌봄 체계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가구의 35.5%가 1인가구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51.5%가 50대 이상의 중·고령층으로 구성된다. 이는 과거 법령과 제도가 전제했던 정상가족 모델이 근본적 한계에 봉착했음을 드러내는 통계이며, 혈연이 아닌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돌봄을 주고받는 개인들이 법적·사회적 보호의 공백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혼자 사는 것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여전히 혼인·혈연만을 가족으로 보는 법체계는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초고령사회에서의 1인가구 증가가 소환한 비혈연 돌봄의 사회적 필요

1인가구의 급증은 한국 사회에서 돌봄의 풍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과거에 가족이 맡았던 돌봄 역할을 이제는 친구나 이웃, 지역 공동체 등 비혈연 관계의 사람들이 대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중·장년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자 생활하는 노인들의 의료·생활 돌봄을 주변의 비혈연 지인이 담당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한편,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도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한다. 2022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0.0%로 10년 전보다 크게 낮아졌으며, 20~30대에서는 결혼을 선택 사항으로 여기는 경향이 더 강하다. 비혼과 만혼 풍조 속에서 장차 형제자매나 배우자, 자녀가 전혀 없는 완전한 1인가구로 노후를 보내게 될 사람들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비혈연 돌봄은 개인의 안전망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위급 상황 시 곁에서 도와줄 보호자가 없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끝에 주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숨지는 고독사 역시 증가 추세인데, 2019년 2,949건이던 고독사가 2023년에는 3,661건(전체 사망자의 1% 수준)으로 늘어났다. 특히, 50~60대 중년 남성의 고독사 비율이 높는데, 이는 전통적 성역할로 인해 가사나 건강 관리 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이혼이나 실직 후 혼자가 되었을 때 적응에 어려움을

1) 이 글은 저자가 작성한 국회미래연구원의 『국가미래전략 Insight』 118호인 "1인가구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 도입 검토"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음을 밝힙니다.



겪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기 때문에 볼 수 있다. 결국 1인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돌봄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혈연을 넘어선 새로운 돌봄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혼인·혈연 기반 가족 중심 법·제도의 구조적 한계

현행 법령과 제도는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주의에 기반하여 설계되어 있어, 비혈연 관계의 돌봄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제한하며, 이러한 협소한 가족 정의는 「의료법」, 「노인복지법」 등 여러 법률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 결과, 법적으로 가족이 아닌 지인이나 동거 파트너, 공동체 구성원은 실령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돌봄 관계가 형성되어 있더라도 어떠한 의사결정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주길 원해도,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아 수술이 지연되거나 입원이 거부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응급 의료 상황에서 환자의 친구나 이웃은 법적 권한이 없어 치료 방향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환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에도 가까운 지인이 아닌 멀리 떨어진 법적 가족을 기다리느라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기존 후견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판단능력을 상실한 후에야 개시되는 사후적 장치로서,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아직 판단능력이 남아 있으나 돌봄이 필요한 다수의 고령 1인가구에게는 후견 제도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의후견 제도가 존재하지만 활용이 저조하고, 개인 간의 계약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분쟁 발생 시 이해관계 대립 등에 대응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후견인을 선임하려면 법원 심리와 의사 감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신청권자 범위도 제한되어 있어, 당사자의 지인이나 지자체 등이 후견인을 지정해주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 실령 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현행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재산 처분이나 의료 결정 등 광범위한 법적 행위를 대리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가지는데, 이는 상호부조적인 돌봄이라기보다 피후견인을 일방적으로 보호·통제하는 위계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후견 제도가 지향하는 보호 목적은 중요하지만, 과도한 권한 부여로 인해 피후견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후견제도는 발동 시점과 절차, 권한 면에서 현대 사회의 다양한 돌봄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생활동반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동반자제도는 혼인 관계가 아닌 두 사람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여 동반자로서 보호하는 제도로서,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이나 독일의 동반자등록법 등의 해외 사례가 존재한다. 한국에서도 몇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사회적 합의 부족과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라는 오해와 전통가족 해체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이 주요 이유였다.

또한, 현재 논의되는 생활동반자제도안은 대부분 1대1의 상호배타적 관계만을 모델로 삼고 있어, 여러 명이 공동체를 이루거나 비성애적인 돌봄 관계에 대해서는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예컨대 친구 사이 셋이나 동네 이웃들이 서로를 돌보는 다층적 관계망은 현행 생활동반자제도로는 담아내기 어렵다. 이렇듯 생활동반자제도는 사회적 인식 부족과 제도 설계상의 경직성으로 인해 아직 한국 사회에서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혼인·혈연 외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장치가 부재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의료·복지 영역의 법적 공백 사례와 위험

가족 중심의 법·제도는 의료 및 복지 현장에서 공백과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선 의료 분야에서 비혈연 돌봄 관계의 한계가 두드러진다.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중요한 수술을 앞둔 응급상황에서, 의료기관은 보호자의 동의와 입회하에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때의 보호자를 법률이 법적 가족관계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 가족이 없는 1인가구 환자나, 실제로는 동거인이나 친구에게 돌봄을 받고 있지만 법률상 가족이 아닌 환자의 경우 적절한 의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의료진은 보호자 서명을 받아야 하나 환자 곁에 있는 친구나 이웃은 법적 효력이 없고, 멀리 떨어진 혈연 가족을 찾아야 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으면 필요한 처치를 제때 하지 못하는 식이다. 실제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2023) 결과를 보면, 1인가구 응답자의 37.6%가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고 답해 3년 전보다 해당 비율이 크게 늘었고, "주변과 단절되어 외롭다"고 느끼는 비율도 23.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봄과 사회적 연결망의 부족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복지 분야에서도 비슷한 공백과 배제가 발생한다.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 다수가 법적 가족 단위로 설계되어 있어, 현실에서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는 비혈연 관계의 개인들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등록은 직계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고 있는 친척 아닌 지인은 보험 혜택을 이어받을 길이 없다. 또,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그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데,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까지만 포함된다. 따라서 실제로 가까이에서 병수발을 드는 사람이 친족이 아니면, 직장인은 법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없게 된다. 예컨대, 혼인하지 않고 함께 사는 파트너가 아파도 현행법에 따르면 돌봄휴직을 쓰기 어렵고, 부모 없이 고령의 삼촌을 돌보는 조카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비혈연 돌봄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를 지원 체계 밖으로 밀어내고, 당사자들의 복지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돌봄 공백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 나아가 돌봄의 사각지대가 커질수록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결국 국가의 공공복지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사회전체의 복지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확장된**』 지정돌봄관계등록제』 도입의 필요성과 설계 원칙

상술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은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를 제안하였다. 지정돌봄관계등록제란 가족이 아닌 신뢰 관계의 타인을 공식적으로 '돌봄관계인'으로 등록하여, 법적 가족이 아닌 비혼·비혈연 관계에서도 일정 범위 내에서 법적 보호자 권한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제도이다. 요컨대,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더라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돌봄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에 그 관계를 등록함으로써 응급의료 동의나 신상 보호 조치 등에서 법적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응급 상황에서 적시에 치료를 받는 것은 모든 개인의 기본적 생명권에 직결되므로, 혈연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최소한의 보호자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생명권 보호의 공백이 발생했다면, 지정돌봄관계 등록을 통해 비혈연이라도 응급 시 대리 동의와 긴급구조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실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비공식적인 돌봄 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동네친구, 이웃, 동거인은 이미 일상 속 돌봄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을 법적으로 유령 같은 존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법·제도가 실질적 생활 현실을 반영하여 이러한 돌봄 관계에도 공식적 지위를 부여할 때, 돌봄 공백으로 인한 개인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셋째, 과거 대가족이나 지역사회가 담당했던 돌봄 기능을 개인화된 사회에서 복원하려면,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다양한 관계망을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 지정돌봄관계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고립된 개인들이 공식적인 관계망에 연결되고, 혈연이 아니어도 서로를 책임지는 새로운 연대 문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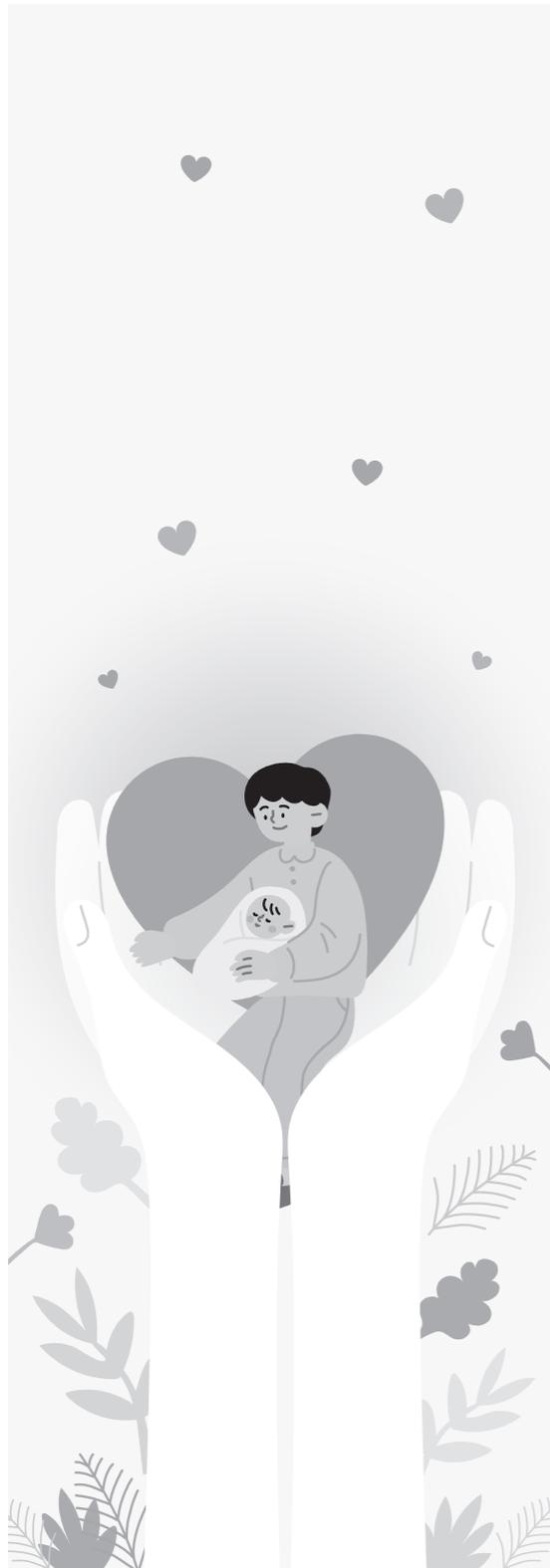
새로운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자율성과 유연성의 원칙이다. 개인이 원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돌봄관계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정은 쌍방 간 합의에 국한되지 않고,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비상호성·복수 지정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생활 형태와 돌봄 관계를 폭넓게 포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한적 권한 부여의 원칙이다. 돌봄관계인에게는 응급의료 동의권, 환자 신상 보호조치 권한, 의료·복지 정보열람권 등 생명권 보호에 필수적인 권한만을 부여해야 한다. 재산 관리나 상속권 등 경제적 권한은 제외함으로써, 흑시라도 생길 수 있는 권한 남용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단계적 확대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새로운 제도를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적용하기보다는, 도입 초기에는 응급 의료와 생명 보호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사회적 인식이 성숙됨에 따라 권한과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러한 원칙 아래 설계된 지정돌봄관계등록제는 기존 후견제도의 지나친 포괄성과 생활동반자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면서,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안전보장의 균형을 모색하는 돌봄 체계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정돌봄관계등록제가 시행된다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혼자 이거나 가족과 연락이 끊긴 1인가구도 병원 수속, 응급 의료 등에서 공식적인 보호자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므로, 위급 시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이 마련된다. 또한, 사회적 연대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던 돌봄 공동체를 국가가 제도권에 편입함으로써, 심리적·물리적으로 고립된 개인에게 공식적 관계망이 생긴다. 이는 서로 돌봄을 주고받는 사회적 연대를 촘촘히 하여 고립과 소외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의 복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민간의 자율적 돌봄체계가 제도권 내에서 역할을 분담하게 되면, 응급 대응이나 병원 수속, 일상 지원 등 일부 서비스를 사회가 공동 부담하게 된다. 그만큼 공공 돌봄 자원의 부담이 경감되어 국가 복지 지출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끝으로, 혈연·혼인 중심의 가족체계가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수용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이는 시대 변화에 대응한 가족 개념 재정립의 출발점이자, 포용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진전이 될 것이다.

변화하는 가족 개념과 새로운 사회적 연대의 방향

지정돌봄관계등록제 도입 논의는 변화하는 가족 개념에 부응하여 새로운 사회적 연대를 모색하는 흐름의 일환이다. 오늘날 개인화와 비혼화, 저출생으로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전통 핵가족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다. 돌봄의 책임은 더 이상 혈연 가족만이 떠안을 수 없으며, 사회적 차원에서 분담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혈연 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 편의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권리 보장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모든 개인은 존엄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사회는 이를 뒷받침할 안전망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혈연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이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자 제도의 결함으로 인식해야 한다. 지정돌봄관계등록제를 통해 혈연과 혼인이라는 경계를 넘어 신뢰와 상호부조에 기반한 다양한 관계를 법적으로 승인하고 보호하는 일은 포용적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는 돌봄의 개인화로 인한 위기를 사회적 연대로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며, 기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기도 하다.



이진희 | 몽실커피 대표

부산 연산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 위치한 몽실커피는 '꿈 몽, 열매 실'을 사용하여 열매를 꿈꾸다 라는 뜻을 담아 자립준비청년들의 아지트같은 공간이다. 같은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의 공동체로 시작했던 몽실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지 10년이 지난 우리가 멘토로 초대되고 양육시설의 고등학생들이 멘티가 되어 자립멘토링 프로그램이 만들어 졌다. 그렇게 우리는 시설의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첫 해에 멘티였던 아이는 내가 시설에 살았을 때 7살이었는데 어느덧 19살이 되어 있었다. 훌쩍 커버린 모습과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생각나며, 더욱 잘 해주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오랜만에 만난 동생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우리들을 어렵듯이 기억하며 마음 문을 열어주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만남이 이어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다. 이 멘토링 프로그램은 양육시설 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더는 함께 할 수 없었기에 퇴소 후에도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과 커뮤니티를 고민하며 생각해낸 것이 카페 창업이었다. 몽실커피는 '사회적기업 가육성사업'의 창업지원금과 퇴소한 청년(몽실멤버)들이 한마음으로 창업자금을 모아 설립하게 되었다.

몽실커피의 목표는, '심리정서적 자립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함께 지지하는 것'으로 우리의 진정한 자립을 위하여 시작되었다. 퇴소 후에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자, 아지트 같은 공간이 되길 바랐다.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게 되면 함께 살았던 친구들을 만날 경우가 잘 없다. 친했던 몇몇을 제외하고는 만나기가 어렵다. 그러나 몽실커피가 생긴 이후 그동안 소식을 알지 못했던 친구들이 몽실커피가 생긴 것을 알고 찾아와 오랜만에 만날 수 있었다.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반가운 마음으로 추억에 젖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 부터 퇴소한 지 10여 년이 지난 선배들까지, 취업소식, 결혼 소식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혹은 굳이 나를 숨길 필요가 없는 가족처럼, 이 공간이 있음으로써 우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 우리의 유대관계를 통해 심리 정서적 자립을 지지하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한다. 몽실커피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자립이라는 열매를 꿈꾸며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 협력하여 인턴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몽실커피에 출근하여 일을 배우고, 사회성을 배운다. 다른 곳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먼저 가르쳐주고 먼저

알려준다. 그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닌 함께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며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가족이다.

몽실의 멤버들은 비록 혈연의 관계는 아니지만 같은 시절을 추억하며, 같은 양육자(시설) 밑에서 자라왔으며,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각자의 외모와 개성, 모두 다름에도 한마음이 될 때가 참 많다.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기에 싸울 때도 있다. 우리는 서로를 가족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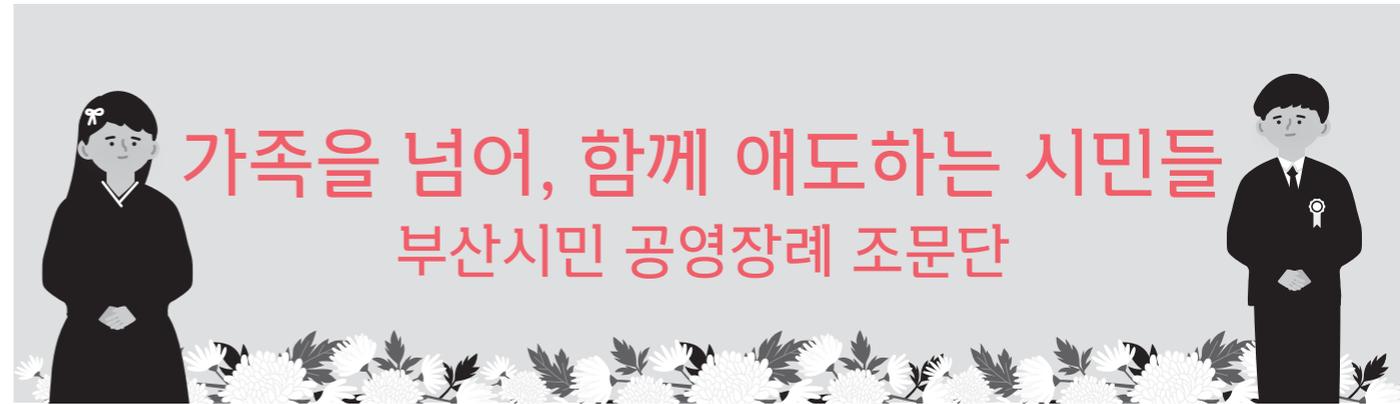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생일을 축하해주며, 때론 이사를 도와주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달려가며, 아플 때는 보호자가 되어준다. 아플 때 가장 서글픈 것은 병원 입원서류의 보호자란에 서명할 보호자가 없다는 것, 너무 아픈데 약을 사다주거나 간병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슬프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의 보호자 역할을 하며, 병문안을 가고, 혼자 가 아니라 함께함을 기억한다. 가족이기에 명절에도 꼭 만나고, 부모님댁은 아니지만 목사님댁을 함께 찾아뵙는다. 이제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게 되는 친구가 있다면 흑여나 가족, 친지의 자리가 비어보일까 서로서로 연락하여 최대한 많은 친구들을 불러 다 함께 결혼식을 찾아가 축하해주며 자리를 빛내준다. 매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순간만큼은 함께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각자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한 피해자로서 양육시설에서 만났지만 다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면 가족이다! 라고 외치며 가족의 역할을 채운다.

퇴소 후 발길을 끊었던 양육시설을 다시 찾아갔을 때, 나를 다시 반겨주는 선생님들이 있었고, 나를 돌보아주었던 엄마(생활지도사)들이 있었다. 나의 기억 속 꼬맹이였던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되어 훌쩍 자란 모습들로 다가왔다. 만약 내가 그 곳을 다시 찾아갔을 때, 나를 반겨주었던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몽실의 일들을 계속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친정집 같은 편안함을 주었기에,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었기에, 저녁 늦게 찾아가면 엄마(생활복지사)는 밥은 먹었냐며 식사를 차려주기도 하며 나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에서 우리는 또 다른 추억을 쌓아나간다.

우리가 살았던 공간에서 이젠 다른 아이들이 지내고 있지만, 멘토링 프로그램과 나들이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이미 라포르가 형성된 동생들이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한 뒤, 우리는 양육시설아동들과 함께 나들이가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고등학생의 아이들을 만나보니, 어렸을 때부터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생들에게 더 많고 다양한 경험을 해주고 싶어 나들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고등학생이 되어도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한 아이들 보면서, 그 이유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 본 경험이 없어서라는 것이 안타까워 '우리 동생들은 다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자!'며 열심히 자전거를 가르쳐 주었다. 또한 우리는 어릴 적 잘 가보지 못했던 놀이동산도 실컷 가보고, 아쿠아리움의 물고기도 보고, 좋은 경험들은 많이 해주고 싶어 최대한 다양하고, 재밌는 것들을 기획하며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 덕에 우리를 몰랐던 초등학생 아이들도 이젠 우리를 알고, 친근하게 다가와 장난을 친다.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믿고 지지해준 양육시설 선생님(사회복지사&생활지도사)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 우리가 멘토로서, 봉사자로서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동생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경험들을 하며, 우리가 겪었던 실수들은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알아주고 응원해주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때론 보호자인 부모님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론 티격태격 하지만 그럼에도 내 편이 되어주는 형제 자매의 역할도 하고, 끈대가 되어 잔소리를 하기도 한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기를, 언제나 내 편이 있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나아간다.



임기현 | 부산반빈곤센터



1. 부산시민 공영장례 운동, 3년의 성과를 돌아보다

부산시민 공영장례 운동은 2016년 11월 24일, 부산지역 시민사회운동단체와 쪽방 주민들이 함께 진행한 고(故) 슬라브님(우즈베키스탄 출신 홀리스 이주노동자)의 공동체 장례식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례를 계기로 '내미는 마음'이라는 쪽방 주민 자조조직이 결성되었으며, 이 운동은 부산시민들이 주체가 된 순수한 민간 활동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이후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모여 공동체 장례식

과 정기적인 합동추모식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총 17회의 합동추모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쪽방 주민 합동추모식 1회부터 9회까지가 진행되었고, 2022년부터는 장애인과 빈민 당사자를 포함한 명절맞이 합동추모식이 1회부터 8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이 탄생하는 역사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합동추모식은 단순한 장례식 의례를 넘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직접 찾아가는 생전 돌봄과 임종 돌봄(공영장례)으로 이어지는 모범적인 통합돌봄의 실험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연고사망자라면 지인들의 애도의 순간마저 허락하지 않고 '무빈소직장'으로 바로 화장해 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는 '공영장례 조례 제정'을 위해서 힘을 모았고, 마침내 부산시는 2021년 12월 29일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27일에는 조문 참여와 애도권 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기도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은 전국 약 210여 개의 공영장례 관련 조례 중에서

서울과 함께 '시민의 애도권 보장'이라는 권리 개념을 조례에 명시한 지역입니다. 우리 센터는 복지기관, 교육기관, 주민자치회, 종교 공간 등에서 공영장례의 취지를 알리는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언론 또한 이를 다수 보도하여 공영장례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시 공영장례 지원 매뉴얼 개정 과정에서 조문 시간을 기존 4~6시간에서 6~8시간으로 연장하여 시민의 실질적인 조문 참여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지역 단체와 느슨한 연대를 구축하여 부산시민들이 공영장례를 알 수 있도록 시민참여 기반을 넓혀 왔으며, 총 2회에 걸쳐 부산시 내 장례식장 54개소의 접근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장례 접근권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2. 부산시 공영장례 제도, 현실을 마주하다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는 장례식의 빈소 운영뿐만 아니라 시신 수습, 운구, 화장, 산골과 봉안까지 장례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제도로 이해되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지자체 담당자의 점검은 주로 빈소 상차림과 대리상주 역할 확인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발인 이후 과정에 대한 행정의 개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골이 목함이나 목관 등 비닐봉투에 담겨 산골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공영장례 제도의 목적과 '존엄한 죽음의 보장'이라는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유해를 쓰레기를 담은 검정 비닐에 담아서 산골을 했다는 것은 천인공로할 일입니다.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 양성과정'을 우리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5기까지 100여명의 조문단이 양성되었습니다. 활동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였고 시민들의 공영장례 참여 의식도 높아졌으나, 여전히 조문시간이 6시간에 불과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조문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이 지속되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인터넷으로 검색해야만 확인 가능한 지자체 부고 게시판 운영 방식 또한 시민의 애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 및 16개 구군 지자체는 공영장례 조문시간을 24시간으로 보장하고, 공영장례 일정에 대한 실시간 문자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무연고사망자로 예상되는 당사자가 생전에 장례 주관자 지정, 장례방식 결정 등을 미리 지정하는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사업은 극히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사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제도지만 역시 신청 자격과 범위가 협소하여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장례업체 및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행정의 관리·감독도 미흡하여 공영장례의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부산시 외 타지역 장례식장에서 공영장례가 진행되는 경우 행정 통제가 더욱 어렵게 나타났습니다.

일부 장례업체는 제도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상업적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공영장례 상담센터 설치 움직임도 전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실시간 부고 알림 시스템에 대해 일부 행정기관 전산실에서 접근을 차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애도권과 참여권을 명시한 공영장례 조례의 취지를 침해하는 행정 조치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공영장례 홍보 또한 부족하여 장례식장 종사자조차 제도의 취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공영장례 제도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시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3.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 함께 풀어갈 과제

단기적으로는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매뉴얼을 개정하여 빈소 조문시간 24시간 보장을 제도화하고, 공영장례 부고 실시간 문자 알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시신 수습부터 화장, 산골, 봉안까지 장례 전 과정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지역별·업체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영장례 부고의 빈소 조문시간 또한 새벽시간(06시)은 지양하고, 6시간이라는 매우 짧은 조문시간이지만 부산 시민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차례 실시된 장례식장 접근성 조사 결과는 행정 정책과 장례식장 현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연대하여 접근성 개선을 당사자 운동으로 확장시키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또한 지자체와의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민관 협의 구조를 마련하여, 조문단이 단순 감시자가 아닌 대등한 협력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영장례가 단순한 장례지원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결되는 마지막 '공공돌봄'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혈연 중심 장례 문화에서 벗어나 시민 스스로 동반자적 관계에 기반한 장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례식은 심각하게 상품화되어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존엄성은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시민의 힘으로 부산시 공영장례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의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

되는 '장례식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 입니다.



박미은 | 사회복지사



뽀뽀 짝은 머리, 까망고 작은 눈,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은 콧물이 가득한 납작한 코, 통통한 볼살에 파묻힌 입술. 이름 대신 '감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납득이 되는 아이. 이제부터 이 녀석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며 함께 낮과 밤을 보내야 한다.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온화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로 녀석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나에게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의 어색한 호의가 반가울 리가 없다. 나의 부름에, 나의 손길에 울지만 양

으면 다행인 날이 한동안 이어진다.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녀석의 괴성에 가까운 울음소리와 거센 발길질을 통해 나의 온몸으로 파고든다. 어쩌면 녀석이 처한 특수한 환경 탓에 쉽게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저 작은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섞여 있을지 애처롭고 애틋하다.

나를 밀어내는 이 녀석이 자꾸만 눈에 밝히고 신경이 쓰인다. 퇴근을 해서도 이 녀석의 얼굴이 그려지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아이들은 자기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차린다. 이 녀석이 내 마음 한 칸에 자리 잡기 시작하자 녀석 또한 나의 껌딱지가 되어 간다. 호기심이 많은 녀석이라 내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며 눈에 보이는 것, 손길이 닿는 것마다 질문을 쏟아내며 내 걸을 벗어나질 않는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어느샌가 나의 배 위로 올라와 세상 평온한 표정으로 꿈나라로 빠져든다. 어릴 적 할머니가 그러했듯이 나도 이 녀석을 '똥강아지'라 부르기 시작했다. 못생긴 '감자'가 아닌 세상에 하나 뿐인 나의 귀여운 '똥강아지'

갓난쟁이부터 대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작은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돌아서면 큰 아이들의 육탄전을

중재해야 한다. 또 어느 날에는 아이의 학교에 불려가 생전 처음 보는 선생님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하고, 새벽 어스름이 가실 때쯤 울리는 전화에 파출소로 달려가 연행되어 있던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 매일이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며 전쟁터와 다름없기에 출근을 하는 순간부터 퇴근을 할 때까지 '오늘도 무사히'를 노래처럼 되뇌는다. 무사한 날보다는 무사하지 않은 날이 더 많은 현장이지만 그럼에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똥강아지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계절이 돌고 도는 동안 똥강아지는 조금씩 나를 닮아간다. 내 뺨속에서 나온 녀석도 아닌데 어딘가 모르게 어릴 적의 내 모습을 닮았다. 어릴 적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아기자기한 소품을 만들어 선물하는 것을 좋아했다. 똥강아지도 종이와 색연필만 보이면 그림을 그리고, 작은 손으로 꺾꺾 색종이를 접어 꽃이며 비행기를 만들어 선물을 한다. 엄마와 처음으로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하던 날, 책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있을지가 궁금해 집에 오던 버스 안에서 다 읽었던 것처럼 똥강아지도 서점에 다녀오는 날이면 버스 안에서 책을 놓지 못한다. 양손을 포개고 뒷짐을 지고 걷는 모습은 어느 누가 봐도 내 새끼. 자연을 느끼며 느긋하게 내딛는 그 걸음마저 나를 꼭 닮아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나의 바람을 눈치 채기라도 한 듯 똥강아지는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고 있다.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등교 준비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눈을 뜬다. 가라앉은 공기와 어둑한 창가를 보니 비가 내리는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하게 빗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 시간이면 가장 먼저 학교에 가는 고등학생 아이의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야하는데 오늘은 어쩐지 조용하다. 우산과 장화를 좋아하는 똥강아지는 비가 내리는 날이면 깨우지 않아도 오뎅이처럼 벌떡 일어난다. 빗소리에 먼저 잠이 깬 똥강아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끼고 녀석에게 큰소리로 불러보라고 부탁한다. 녀석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한 쪽 귀로만 들린다. 전날부터 귀가 이상하더니 결국 문제가 생겼나보다. 내가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똥강아지가 갑자기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한다. 자기 때문에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라고, 자기가 귀에 대고 소리를 질러서 귀가 이상해진 거라고.

며칠 전 장난을 친다며 내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위험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기에 이런 장난을 치면 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나보다. 똥강아지의 반응이 귀엽기도 하고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 상황이 무섭기도 하여 나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녀석을 다독인다. 이후 나는 치료를 받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똥강아지는 더 이상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장난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날의 기억이 멀어져 갈 때쯤 똥강아지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함께 모인 생일 파티 자리,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저마다의 춤 실력을 뽐낸다. 한껏 흥이 오른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자 그 소리는 흥이 아니라 소음에 가깝다. 미간에 주름이 가고 절로 인상이 찌푸러지는 순간 똥강아지가 나에게 다가와 양손으로 내 귀를 꼭 막는다. 그 작은 손으로 내 귀를 막으며 아이들에게는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부탁을 한다. 오래전 그 일을 똥강아지는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또 다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그 마음이 양손의 따뜻한 온기를 타고 나의 온몸으로 파고든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기억하듯 너 역시도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구나. 나에게 이렇게나 사랑을 주고 있구나. 녀석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한다. 이렇게 사랑을 쏟아 붓는다. 차고 넘칠 만큼.

어린이집 차량을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에도 똥강아지의 눈과 손과 발은 쉬지를 않는다. 험사리 눈에 띄지도 않는 길가 모퉁이에서 자라고 있는 토끼풀 무더기를 들여다본다. 아마도 네잎클로버를 찾고 있겠지. 쪼그리고 앉은 귀여운 뒷모습을 이대로 지나치기가 아쉬워 카메라에 담은 순간 작디작은 손에 토끼풀 하나를 꼭 쥐고 뛰어온다. 설마 네잎클로버를 찾은 것일까? 기대를 하며 내민 내 손바닥 위에 토끼풀을 올려놓는다. 하나가 부족한 세잎클로버. 실망한 내 표정을 읽은 똥강아지는 웃으며 말한다. 네잎클로버는 행운이지만 세잎클로버는 행복이라고. 그리고는 토끼풀 무더기를 몇 번을 더 왔다 갔다 하더니 손바닥 위에 한가득 세잎클로버를 올려놓는다. 똥강아지의 속도에 맞춰 수를 세어 보니 31개.

"31개의 행복을 주고 싶었다" 말하는 똥강아지가 곁에 있어서 오늘도 충분히 차고 넘치고 또 넘칠 만큼 행복하다.

<그렇게 가족이 된다>

정가은 | 영화비평가

불가항력적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먼저 보호하거나 지키고자 한다면 그 대상은 사랑하는 연인이거나 가족일 것이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어느 정도 이기적이기에 위기가 닥쳐올 때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 우선으로 작동하기 마련이다. 이를 넘어서는 유일한 존재가 가족이다. 가족애와 희생심은 가족 영화의 핵심 소재로 빈번히 등장한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 늘 미안함만 남는 자식의 이야기는 늘 관객의 눈물 버튼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지금껏 가족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희생 서사와 가족애는 대체로 혈연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통상적으로 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혈연 또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관계를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가족의 사전적 정의 또한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가족애의 원천은 혼인, 혈연, 입양 등을 통한 생물학적 또는 법적 연결에 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점차 가족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젠더적 다양성과 문화적 복합성이 보편적 가치로 수용되면서 가족의 양태는 보다 다양해졌다. 혈연 기반의 핵가족을 이상적인 가족상(像)이라 생각하여 가족의 양태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 짓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 된 지 오래다. 이혼, 재혼, 한 부모, 다문화 등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의 폭도 확장되었으며, 1인 가구의 증가와 비혼주의의 확산 등과 같은 사회 변화 속에 비혈연 가족도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영화에서도 반복되는 희생 중심의 가족 서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흐름이 등장한다.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그리며, 가족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묻는 대표적인 감독이다. 그는 성찰적이고 섬세한 시선으로 일상을 집요하게 응시하며 가족 내부에서 발생하는 작은 균열과 일그러짐을 세심하게 포착한다.

그의 영화 속 가족 공동체는 종종 비혈연 관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에 반발심을 갖는 건 주로 아버지다. 그의 영화에 등장하는 이기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들은 가족 공동체를 결속하는 힘은 혼인과 출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혈연적 가족의 탄생은 우연성의 영역이다. 부모가 원하는 모든 요소를 다 지니고 태어나는 아이는 없다. 어떤 아이가 태어나느냐는 우연의 산물이자 주어지는 것이다. 부모도 자식도 서로를 선택할 수 없다. 주어진 관계를 받아들이는 관성적인 과정을 통해 가족이 되는 것이기에, 생물학적 연결이 정서적 유대를 보장하지 않는다. 어쩌면 '낳은 정'이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른다. 아버지들은 이를 깨달으며, 새로운 부자 관계를 설정해 나간다. 비혈연 관계를 받아들이며 재편성되는 가족의 양상은 혈연으로 맺어진 전통적인 가족 모델이란 허상에 불과한 것임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비혈연 관계에서 가족을 이루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가장 깊은 대답이 담긴 작품이 <어느 가족>(2018)이다. <어느 가족>의 원제는 '만비키 가족(万引き家族)'인데, 이는 좀도둑 가족을 뜻한다. 영화는 좀도둑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부부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유리)를 목격하자, 연인이 생겨 데려오는 것으로 시작한다. 웬지 미덥지 않은 느낌을 풍기는 오사무와 그의 아내처럼 보이는 노부요, 초등학교 정도 되어 보이는 아들 쇼타와 고등학교 소녀 아키, 그리고 할머니 하츠에가 함께 지내는 이 공동체는 외적으로는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법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일만한 여지가 없다. 노부요와 오사무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며, 쇼타와 아키는 이들의 자녀가 아니다. 하츠에 또한 그 어느 쪽의 어머니도 아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오히려 저마다의 이기(利己)를 위해 모인 이들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감독은 이 영화의 제목을 만비키 '가족'이라고 호명한다.

혈연이나 법적으로 묶여 있지 않음에도 서로의 결핍을 감싸안고 함께함으로 살아 내려는 이들을 가족이라 할 수 있을까. <어느 가족>의 가족 구성원들은 지역, 기업, 가족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왔거나 배제되어 보이지 않기에 사라져도 찾는 사람조차 없는 상태이다. 오갈 곳 없는 그들은 결핍을 비밀처럼 숨기고, 살아남기 위해 함께 하기를



택한다. 그 시작에는 유대나 사랑 등의 따뜻함이 부재했을 수 있으나, 다 같이 모여 불꽃 놀이를 감상하고,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소박하지만 단란하게 전골 요리, 크로켓 등을 먹는 시간. 묵묵하며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시간이 쌓여 이들을 가족-되기의 과정으로 이끈다.

그러나 사회는 이들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도와 법의 관점에서 이들의 함께함은 엄연한 범죄행위다. 결국 사회의 심판을 받게 되고, 굳이 들춰보지 않았던 각자의 결핍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 오사무는 전과가 있었으며, 이름조차 거짓이었다. 노부요는 아이를 원했지만,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아이를 갖지 못해 부러운 마음에 유괴한 것이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노부요는 이렇게 말한다. '우린 주운 거예요. 잘못된 버린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낳으면 다 부모가 되나요?'

조사실에서 노부요가 던진 반문은 혈연으로 묶인 가족 공동체라는 뿌리 깊은 나무의 근간을 요동치게 한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부터 뺏어나간 가지는 단단히 자리 잡고 성장하기도 하지만,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물리적 작용에 언제든지 부러질 수도 있다. 또한 나무가 뿌리부터 썩어가는 순간 가지는 어쩔 수 없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만비키 가족은 나무에서 부러져 떨어진 가지들이 모여 만든 덩굴 다발이다. 덩굴처럼 유연한 관계는 잘 부서지지 않는다. 촘촘히 연결된 덩굴 다발은 어느 한 줄기가 잘려 나가더라도 다시 연결될 가능성을 지닌다.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러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오사무는 쇼타에게 그가 다쳐 병원에 있을 때 도망가려고 했음을 고백하며 이제 아빠가 아닌 아저씨로 돌아가겠다 한다. 이에 쇼타는 자신도 의도적으로 경찰에게 잡혔음을 고백한다. 이후, 떠나는 버스 안에서 쇼타는 처음으로 오사무에게 아빠라고 작게 읊조린다. 이들은 서로 살아 남고자 손을 놓았지만, 솔직한 고백과 용서의 과정을 통해 다시 손을 잡는다. 가족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힘이 들 때면 기대고 싶은 마음의 안식처다. 만비키 가족은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없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추억이라는 고향이 생겼다.

가족 구성원의 혈연, 비혈연 여부를 묻는 건 무의미하다.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그리는 가족에는 법도, 피도, 제도도 없다. 가족은 사회 시스템으로 거를 수 없는 개별성과 특수성을 지닌 공동체이다. 이 특수한 공동체를 지키는 건 유대의 힘이다. 법적인 제도와

유전적 연결이 사랑을 기반으로 한 유대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유대는 서로를 향한 관심과 애정,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 나아가 친밀성의 감각과 돌봄의 태도, 타자를 향한 윤리적 태도로 함께하는 시간의 축적에서 기인한다.

가족은 처음부터 완성된 결말이 아니다. 사랑의 지속으로 쌓아가는 시간의 층위를 간결하게 합의할 뿐이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것이다. 친밀성과 경제적 공동성으로 묶인 공동체를 가족이 되게 하는 건 서로를 함께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다.

불완전한 존재일지라도 서로의 결핍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며, 사랑을 기반으로 다정함을 표할 때, 상처를 쓰다듬는 손길과 따뜻한 포용의 시간이 쌓여 서로에게 위로의 존재가 되고 함께 살아갈 동력이 된다.

그렇게 가족이 되어 간다.





치코리타 FS 창단 계기

이하정 | 치코리타 FS

현재 치코리타 회장을 맡고 있고 치코리타를 만든 장본인인 제가 치코리타 FS를 창단하게 된 계기는 직장 생활을 하던 중 무료함을 느끼며, 일상 속 활력을 찾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다시 다지고 싶다는 마음에 여러 운동을 알아보던 중, 직장 근처에서 여성 풋살 아카데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축구를 좋아했고 공을 다루는 스포츠에 특별한 즐거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어 자연스럽게 흥미가 생겼고, 그렇게 풋살 아카데미 수업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저는 이미 팀에 소속되어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기존 수강자 분들을 보았습니다. 실력 차이가 있었고, 그분들이 팀 훈련과 대회 참여를 병행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면서 저 또한 더 배우고, 더 잘하고 싶다는 열망이 강하게 생겼습니다. 이 과정은 저에게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가 되었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향한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수업이 없는 날 개인 연습을 시작하려 하자, 처음에는 풋살장 위치조차 잘 알지 못했고, 풋살 동호회나 모임 문화 또한 낯설었습니다. 그러면서

풋살이라는 운동이 누군가 먼저 제안해주지 않으면 쉽게 시도하기 어렵고, 혼자 시작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바로 팀 창단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초보자끼리 매주 모여 함께 연습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저는 함께 수업을 듣던 분들께 한 분 한 분 직접 다가가 "같이 연습해 보실래요?"라고 제안 드렸습니다. 단순히 함께 공을 차는 것을 넘어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다음 날 함께 복습하고, 서로 피드백을 나누며 다음 수업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형 풋살 문화'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주신 분들이 차츰 늘어나면서 인원은 세 명, 네 명으로 자연스럽게 구성되었고, 우리만의 연습 루틴과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임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순간, "초보자들이 함께 모여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도전 목표가 생겼습니다.

초보자라 하더라도 꾸준하고 성실한 연습을 통해 충분히 성장할 수 있으며, 누구나 부담 없이 풋살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고해졌고, 단순한 취미 모임에서 나아가 한 팀으로서의 정체성과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치코리타FS라는 이름으로 2024년 4월 2일 공식적으로 치코리타FS가 창단되었습니다.

치코리타FS는 "초보자도 성장할 수 있는 팀, 누구나 즐겁게 풋살을 시작할 수 있는 팀"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실력 향상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팀을 넘어, 스포츠를 통해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치코리타FS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치코리타FS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의 첫 개인훈련

[풋살장을 몰라 맨바닥에서 훈련]



구성원

치코리타FS는 학생부터 직장인, 주부까지 미혼과 기혼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20대부터 40대 초반의 여성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운동을 좋아하고, 축구에 대한 호기심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처음 공을 잡아본 분부터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까지 모두가 한 팀으로 모여, 서로 응원하며 즐겁게 공을 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력보다 함께 성장하고 즐기는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

주요활동

치코리타FS는 단순히 풋살 경기와 훈련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팀워크 강화를 위해 매년 1박 2일 하계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으로 여행 겸 풋살 전지훈련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팀원들 간의 유대가 깊고, 서로를 신뢰하며 응원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팀 문화 덕분에 경기에서뿐만 아니라 연습과 활동 전반에서 협력과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팀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

치코리타FS는 창단 이후 2025년 5월 초까지 훈련과 멤버 정비에 집중했습니다. 팀의 첫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대회에서 1승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거쳤고, 결국 전문 코치진을 영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모여서 공을 차는 모임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코치진과 함께하면서 훈련 방향과 팀 운영 체계가 점차 정비되었고, 선수 개개인의 실력도 빠르게 향상됐습니다. 그 결과, 첫 공식 대회였던 고성 MBC풋살대회에서 1승 1무 1패 및 첫 16강 진출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첫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이후에도 부산시장배, 부산강서 어반풋볼대회, 밀양아리랑배 등 다양한 대회에 출전하며 경험을 쌓아왔고, 특히 밀양 아리랑배에서는 무패·무실점으로 16강 진출이라는 팀의 최고의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치코리타FS는 단순한 취미 모임을 넘어,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도전하는 팀입니다. 초창기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해준 멤버들, 그리고 새롭게 합류해 팀 문화를 함께 만드는 멤버들 덕분에 팀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2승 달성, 그리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더 높은 단계의 대회 도전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도 멤버들은 겨울 날씨 속에서도 꾸준히 훈련에 참여하며,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풋살이 처음이거나 낯설어 망설이는 여성분들이 많지만, 최근에는 각 구에서 여성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무료 풋살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구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해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25년 10월19일
밀양아리랑배 풋살대회
참여 사진



경기 시작 전
파이팅을 위해
준비 중



우리 영화의 한 장면이 된, 부산 모퉁이극장

배슬기



부산 모퉁이극장 전경(출처: VISIT BUSAN)

영화관을 간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의 기억을 곰곰이 들춰보니, 나의 마지막 영화는 '아바타'였던 것 같다. 그것도 같이 간 친구는 재밌게 봤는데, 나는 옆에서 중간에 자 버려, 친구가 많이 속상해했던 기억이...

약 1시간 정도 방영되는 드라마도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나에게, 긴 흐름을 가지고 가는 영화는 나에게 시간 낭비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영화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몇 만 원이 들기도 하고, 플랫폼 산업 발전으로 최신 영화를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영화관에 갈 필요가 더욱 없어졌다.

그러던 중, 직장 때문에 부산으로 간 친구와 함께 부산 구경을 하던 중 이름마저도 귀여운 '모퉁이극장'을 발견하였다. 골목을 한가득 채우는 주황빛의 건물은 우리의 눈을 사로잡았다. 뭔가 기하학적인 건물에 붙은 낯선 영화 포스터는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화려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며 계단 하나하나를 천천히 올라가면서 양옆에 붙은 영화 포스터를 보며, 친구와 서로 본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또 뭔가 흥미를 끄는 영화 포스터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며 3층으로 올라갔다.

3층에서 우리는 지금 시간에 볼 수 있는 영화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설마 이 사람들이 다 영화를 볼까? 그냥 랜드마크와 같은 이곳에 놀러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나의 생각과는 달리 남은 좌석은 별로 없었다. 정말 다행히 조금만 기다리면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어 우리는 고민 없이 영화를 예매하였다.

잠깐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은 기우에 불과하였다. 3층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금지옥엽'이라는 소품숍은 물론이고 '미립서재'라는 공간도 있었으며, 2층에는 아트갤러리와 카페가 있었다. 우리는 우선 커피를 마시러 2층 카페로 갔다. 카페는 여느 힙한 카페와 같았으며, 카페 한 곳에서는 영화관 내 위치한 카페를 알 수 있듯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부산 곳곳을 걸어다니며 구경했던 탓에 조금 고픈 배를 베이커리와 커피로 채우면서 우리는 몇 달간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늑한 카페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커피가 점점 식어감이 느껴졌을 때, 우리는 시간을 확인하였다. 아직 영화가 시작되기에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다.

2층에도 볼 것이 많았지만, 우리는 아까 3층에서 티켓을 예매할 때 눈여겨봤던 서점에 가 보기로 했다. 둘 다 책을 보는 걸 (읽는 게 아니라) 나름 좋아했던 터라, 둘이서 함께 아까 올랐던 계단을 다시금 올랐다. 독립서점과 같은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미립서재'에 갔다. '경험한 이치를 공유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곳에는 책에 대한 누군가의 경험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우리도 그곳에 우리의 경험을 나누어 쌓기 위해 마음에 드는 책을 하나씩 들었다. 긴 책상에 앉아 먼저 이곳을 다녀간, 이 책을 든 사람의 느낌을 고스란히 느끼며, 나도 다른 사람이 이곳에 왔을 때 나의 기억의, 추억의 온기를 느낄 수 있길 바라며 영화를 보러 갔다.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왔기 때문일까? 아니면, 옆에 소중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일까? 영화 시작과 함께, 영화 속으로 빠져들었다. 긴 시간이 지나 영화는 끝이 났고, 반짝, 어두웠던 공간이 환하게 빛이 났다. 부산에서 우연히 발견한 모퉁이극장에서의 추억이 우리만의 영화에서 소중한 한 장면이 되길 바라면서, 부산 여행을 마무리하였다.



부산 모퉁이극장 내부

전통을 탈피하는 모던국악밴드 대표 김아름 소리꾼

부산의 옛것에서 오늘을 건져 올린다

조서연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초빙교수



본연의 특성들을 그러모아 함께 만드는 곡에서의 탈피를 모색한다. 음악 가족의 새로운 형태이다. 국악의 본질은 지켜 나가되 구성원들마다 각자가 맡은 부분에 현대성을 가미한다. 장르는 변질되지 않는다. 그들 모두가 애초부터 같은 혈통에서 나온 하나의 유전 집단이었으니 말이다.

올해 10월 부산에서 '2025 전국체전'이 개최되었다.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 광장에서 열린 '문화예술축전'의 중심 행사에 부산 대표로 모던국악밴드 '탈피'가 올랐다. 그날의 열띤 분위기 속에서 공연을 마치고 내려온 밴드의 리더이자 소리꾼 김아름을 한 카페에서 만났다. 조금 전 무대 위에서 전통의 울림을 한껏 풀어내던 모습, 현대식 검은 정장 차림 그대로였다.



오늘의 "탈피"는 밴드 이름답게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거듭 중인 듯합니다.

"멤버 대부분이 개인별로 음악 활동을 오래 해오던 사람들입니다. 10년 이상 되었다고 봐야겠네요. 자기 색채가 뚜렷한 사람들이데 껍질을 벗고 나와 우리들만의 새로운 색깔을 빚어 보자, 이렇게 해서 '탈피'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제일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은 단연 전통음악의 탈피입니다. 국악은 대중들에게 지루한 음악일 수

있고 어려운 예술이기도 합니다. 접할 기회도 많지 않아요. 이런 전통을 기반으로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현대적으로 많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으로 변모시켜 보자, 그래서 2022년 데뷔하여 지금의 '탈피'가 있습니다."

전통과 창작을 같이 해 나가는 일은 현재를 사는 관객들을 향하겠습니다.

"옛것의 소리를 오늘의 감정과 쌓아 갑니다. 똑같은 가사인데도 그날그날 전해지는 느낌이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탈피'는 소리하는 저를 비롯해서 타악(김인균), 해금(이선영), 가야금(서규범), 피리·태평소·생황(박수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에는 누구 한 명의 작곡가가 있지 않습니다. 작곡가가 있으면 그 작곡가의 색깔을 온전히 가져가야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하고 공부해서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기 전공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존중해 주면서요. 편곡뿐만 아니라 호응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도 고려합니다. 옛날 가사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용어나 의미들로 생성시킵니다. 모두 지금의 관객들과 가까워지기 위함입니다."

혼자 아닌, 음악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들이 녹록치 않았을 텐데요.

"음악은 악보 없는 후 작업으로 만들어 갑니다. 악보를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곡을 만들고 뒤에 채보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팀의 대표곡이기도 한 '동백'을 만들 때가 생각합니다. 당시 제가 민요 '동백타령'과 관련해 멤버들에게 '우리는 서정적이고 소박한 느낌으로 예쁘게 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내비쳤어요. 그러곤 제가 노래를 불렀지요. 뒤이어 건반 음을 쳐주고 자리에 함께 한 이들이 자기만의 선율을 덧썼습니다. 서로 같이 맞춰 보다가 '뒤에는 해금이 나오면 좋겠다', '이 부분에는 네가 등장하면 어울리겠다'하면서 겹겹이 만들어 갔어요. 즉흥으로도

하지만 자기 소리 라인에 맞게 짜서 온 것을 들려주며 조율합니다. 연습할 때마다 녹음을 하고 다시 모니터링하면서 좋았던 부분은 살리고 멜로디 수정을 반복하며 공동 작업을 합니다."



부산 공연예술로 우수예술지원을 받았는데, 남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늘 공연예술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전통 음악은 단순히 문화유산으로만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보급에도 힘써야 합니다. 이런 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그만큼의 마인드 세팅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연주 실력을 갖춰야 하겠지요.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저희 팀 연습 양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는 듯합니다. 저희는 함께 모이면 시간을 정한 순간부터 악기 내려놓을 때까지 휘몰아칩니다. 보통 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의 밴드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각자의 색깔이 다 보이게 모두에게 들렸으면 좋겠다', '국악을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다 함께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치려고 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봐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 개인으로서 '소리하는 김아름'을 만들어 낸 것들도 궁금해집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한국적인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기와집이나 초가집을 그려 넣고, 노래를 불러도 민요대회에 나가거나 하는 식이었지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한국무용을 배우고, 고등학교 때에는 취미로 판소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운이 좋았던 게 무형문화재인 선생님을 아주 잘 만났어요. 그 시절 수업 할 때 배우던 춘향가의 한 가사에 꽃히게 되었는데, 춘향 이와 이몽룡의 이별 장면에서였습니다. '임 멀어져 가는 모습이 달만큼 보이다가 별만큼 보이다가 나비만큼 보인다'는 그 가사, 고어가 주는 가사가 어쩔 그렇게도 좋았을까요. 이때 판소리를 전공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가기 전에는 서울로 가신 선생님께 수업 들으러, 대학 입학 후에는 흔히 말하는 '산공부'하러 다니며 연마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음악교사이면서 국악 대중화 연구에도 관심이 큰 것으로 압니다.

"저는 판소리가 좋아서 전공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언제 한번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으로의 멘토가 된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학생들 반응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 사이에 큰 차이를 두면서 국악에 대한 선입견이 크더라고요. 우리 음악은 고급지지 않고 지루하고 지금은 듣기 어려운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여기는 듯했습니다. '내가 이런 편견을 좀 없애고 싶다', '내가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고 그때부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육 대학원 들어가서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학교로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음악교사로 근무하고 또 현재 박사과정 중에 연구하는 것도, 학교 아이들과 더불어 다양한 연령층들이 함께 살아있는 전통음악으로 호흡하고 싶은 것이 바탕이 되지 않나 합니다."

부산시 무형유산 <수영농청놀이>에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 흥미롭습니다.

"오래전인 1972년에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수영농청놀이>가 지정된 바 있습니다. 수영구 지역에서 '농청'이라는 공동 작업을 할 때 쓰이던 노동요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연구를 하면서 보니 이거 참 특색이 있어요. 명색이 부산시 문화유산인데 즐길 수 있는 거리는 부산 안에서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곡 특성상 요즘의 노래로 바꿔 불러 보면 젊은 사람들도 재미있어 할 것 같았습니다. <수영농청놀이>의 '풀베기 소리'를 가져와서 작업을 해 봤어요. 실제 현장 장소에 가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곳의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가사의 사투리를 직접 활용하면서 연계성 있게 구성했어요. 곡명으로 붙인 '봉덕'은 오랜 시간 찾고 품었던 소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곡에서 '봉덕아, 어데로 갔노'하는 후렴구가 중독성 있게 흘러 나와요. 공연을 경험하는 관객들 저마다의 '봉덕이'를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산 동네마다 떠돌아다니는 옛이야기들이 영감의 원천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음악을 하고 싶다 말하면, 저의 지도교수님은 '부산을 많이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라는 말을 덧붙이십니다. 그만큼 제 영감의 원천은 부산에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여태껏 살아온 도시인 데다가, 저와 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도 이 지역 이야기를 소재로 활용하고 싶어요. 운전을 하면서 지명을 보면 '왜 이렇게 되었지?'하고 곱씹어 생각합니다. 관심 갖고 찾아보면 그 안에 숨겨진 설화를 건져 올리게 돼요. 사실 산조나 판소리 등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스타일 따라서 그대로 답습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지방무형유산은 그렇지 않아요. 전문성이 있지 않다 보니, 그게 어찌 보면 살아있는 음악이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노래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당대를 사시면서 이루신 것들이 많아요. 계속 전해 내려오는 옛이야기들에서 그만의 가치가 느껴집니다. 실제 삶을 엿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신을 비롯해 팀과 전통음악을 하는 동료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부산에는 무형유산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숨어있는 무형유산을 끄집어내고 현재의 소리로 발전시키는 데에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통 민속 예술공연이라는 이름 하에 1년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열리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이끌어 가는 문제가 시급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음악이든 제 나름의 시각에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 새롭고 재미있지 않나 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적용시키며, 단발성이라기보다는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 팀은 물론이고 전통음악을 하는 모든 분들이요.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젊은 예술가들이 옛것에 관심 갖고 많이들 연주해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터뷰가 끝나고 그에게 뒤의 일정을 넌지시 물었다. 큰 축제에서의 무대 공연이 있었고 장시간의 대화가 이어진 참이었다. 그에게는 심이 간절할 터였다. 그런데

필자의 예상과는 다른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곧바로 차를 몰고 연습실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의 지극히 평화로워 보이는 모습에서 익숙한 일과임을 알 수 있었다. 오래된 음악을 연습하면서 건져 올리게 될 오늘의 새로운 감정은 앞으로의 각 무대에서 정형화되지 않고 다양하게 흘러나올 것이다.

01/ 워라밸 주간 기념식 및 워라밸 우수기업 시상식

부산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워라밸 주간(11.02~11.08)을 맞아 기념식 및 워라밸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워라밸 최고경영자, 아이키우기 좋은 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등 3개 부문 우수기업 5개사에 부산광역시시장상을 수여하였다. 또한, '워라밸 행복도시부산 함께 만들겠습니다' 캘리그라피

슬로건 퍼포먼스로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의 의미를 되새겼다. '제3회 일생활균형포럼', '일생활균형 캠페인',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문화행사, 요트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워라밸 주간의 의미를 되새겼다.



02/ 가족친화인증기업(관) 인센티브 확대 협약식

부산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2024년 전국 최초로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를 5개 시도에 제공한 데 이어 올해는 7월 17일 제주, 9월 9일 대구와의 협약으로 인센티브 제공 범위를 확대하였다. 대구 지역 ▲이월드 ▲대구약령시 한방의료체험타운 ▲동성로 스파크 ▲리조트 스파밸리 ▲(주)만재푸드 ▲(주)아쿠아월드 ▲호텔 인터볼고 엑스코, 제주지역 ▲(주)한림공원 ▲모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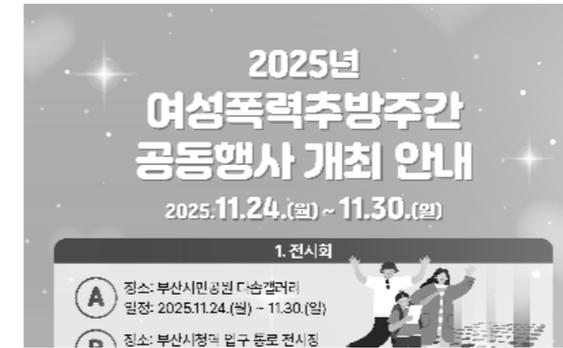
스제주파크(주) ▲까사로마호텔 ▲플개협동조합 ▲(주)메이크어베러 ▲(주)청룡수산 ▲제주생명농조합법인 등 17개 기관에서 입장료·이용료·물품 구매 시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인센티브 확대로 가족친화 인증기업 임직원들은 제주·대구 등 타지역에서도 다양한 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어 지역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인센티브의 활용도 높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03/ 2025년 여성폭력추방주간 공동행사 개최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센터(이하 이젠센터)에서는 11월 24일(월)부터 11월 30일(일)까지 7일간 부산시민공원 동백꽃방, 다솜갤러리, 다솜광장에서 '있다, 연결하다, 함께 하다'를 주제로 2025년 여성폭력추방주간 공동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부산시민공원 다솜갤러리 전시회, 부산시청

역 통로전시회, 부산시민공원 동백꽃방 북콘서트,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 연대캠페인 총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여성폭력에 대한 대시민 인식 개선과 여성폭력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알리고, 여성 피해자 지원 기관 안내 등 정보를 제공하였다.



04/ 2025년 「도모헌 부산학교」 성료

2025년 「도모헌 부산학교」는 3월 11일 '인생과 사진'을 주제로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지난 11월 20일 올해의 마지막 기수인 '도모헌 부산학교 하이라이트' 11기의 네트워킹 데이(수료식)를 끝으로 한 해의 여정을 마무리하였다.

11기는 기존 참가자들의 호응이 높았던 강좌를 중심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도모헌 부산학교 한 해의 배움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도모헌 부산학교는 복합문화공간 도모헌을 기반으로 인생학과 전문 분야를 결합한 강좌를 운영하며, 시민 간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지식과 공감의 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는 전문 분야(건축·투자·음악·

역사 등)의 강사로 존리 대표, 김영익 교수, 조윤범 음악해설사 등을 비롯해, 인생학 분야의 유명인 작가, 황범 PD 등을 초청하여 전문성과 통찰을 동시에 제공하는 융합형 강의 구조를 구축하였다.

또한 매 기수의 마지막 회차에는 네트워킹 데이(수료식)를 개최하여 교육생 간 교류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구성원 간 유대감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산 시민으로서의 동질성과 소속감을 회복하는 배움터가 되었다.

올해 총 누적 수강인원 약 4천 명, 전반적인 만족도 96% 이상을 달성하며 시민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도모헌 부산학교가 지역사회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05 위(Women)풍당당 링크사업 콘퍼런스 개최

2025년 11월 15일, 부산청년센터 우당당 다목적실에서 '2025년 위(Women)풍당당 링크사업 콘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이번 콘퍼런스는 멘토와 멘티 총 27명이 함께 모여 올해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활동팀 시상과 특별 프로젝트 결과물 발표, 종합 토론 및 특별 토론 발표 등을 진행하며 한 해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사업의 주요 활동인 멘토링 활동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다양한 분야의 현직자와 직접 소통하며 각 팀의 관심 분야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해 왔다. 특히 멘토와 멘티가 1:1로

의견을 교환하고 결과물을 완성해가는 과정은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새로운 동기부여를 얻고 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또한 팀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발표 프로그램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던 점도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멘토링, 팀 프로젝트, 발표 프로그램이 서로 연계되면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성과와 참여 가치가 한층 강화되었다.



06 2025년 제3회 양성평등정책포럼 개최

2025년 제3회 「양성평등정책포럼」이 11월 19일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총 104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번 포럼은 여성안전을 도시의 기본 권리이자 양성평등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부산시 여성안전정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는 누구에게나 안전한 도시"라는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에서는 부산의 여성안전정책과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현황, 디지털 성범죄와 관계 기반 폭력 등 변화하는 여성폭력 양상,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지역사회 안전정책의 젠더 관점 재정립 등 다양한 주제가 폭넓게 논의되었다.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가치와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론의 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07 결혼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위한 「나의 사랑, 나의 결혼」 추진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결혼 문화 조성 및 공공예식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나의 사랑, 나의 결혼」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의 사랑, 나의 결혼」은 결혼하기 좋은 부산을 위한 정책 브랜드로 ▲공공예식장 결혼식 지원 ▲함께 만드는 합리적이고 건강한 결혼문화조성' 시민의견조사 ▲결혼문화조성을 위한 홍보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함께 만드는 합리적이고 건강한 결혼문화조성' 시민의견조사는 결혼식 문화에 대한 인식, 공공예식장 인지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 부산시민 2,843명이 참여하였다. 참여한 부산시민 중 81.1%는 공공예식장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2.2%는 공공예식장 이용(추천)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월 18일~19일 양일간 부산시민공원 공공예식장에서 KB 국민은행 후원으로 '나의 사랑, 나의 결혼' 행사를 열어 특별한 사연이 있는 커플 4쌍의 결혼식을 지원했다. 결혼식에 참여한 신부는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의미 있는 결혼식을 실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나눔과 배려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향후 공공예식장 운영에는 결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활성화 및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결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08 결혼초기부부의 관계건강증진을 위한 「가족톡톡스쿨 결혼검진」 추진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결혼초기 부부의 관계 건강 증진을 위해 「2025년 가족톡톡스쿨 결혼검진」 사업을 운영 하였다. 부산지역 가족센터 가족상담인력 및 위촉 상담가 48명을 대상으로 결혼검진 컨설턴트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인적 기반을 구축하고, 구군 가족센터에서 부산시 거주 커플, 예비부부, 결혼 10년 이내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검진을 실시하였다. 결혼검진 프로그램은 사전검사-측정회기-피드백 회기로 진행되었으며, 총 48커플이 참여해 높은 관심과 참여도를 보였다.

사전·사후 검사 결과, 결혼만족도, 부부관계 이해, 관계향상 방법 이해, 자기효능감, 관계향상 동기 5개 지표가 모두 향상되었다. 특히 관계향상과 자기효능감은 12점 상승하여, 참여자들이 관계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결혼검진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4.55점, '다른 부부에게 추천하고 싶다' 4.50점으로, 전체 평균 4.53점(5점)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업운영과 함께 슈퍼비전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실무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하였다.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결혼검진의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 사후관리와 구·군센터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2026년에는 보다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09/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상담 서비스 운영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은 비양육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확보지원서비스'와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요건 등 초기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따라, 양육비 정기 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을 자녀 연령 만18세까지 매월 지급된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에서는 지원대상여부 확인 및 절차안내,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한부모가족을 위한 종합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상담은 평일 9:00~18:00, 토요일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온천동)와 협력기관 동래구가족센터,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사하구가족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051-580-9002로 하면 된다.



01/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대응 등에 453억 원 예산 투입

여성가족부(2025.09.16.)

- 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도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올해 425억 원에서 28.6억 원(6.7%) 증액한 453억 원으로 편성함.
- 이번 예산 확대는 단순히 지원 규모 확장뿐 아니라 피해자가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안전을 체감하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주거지원·치료회복 등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가 폭넓게 제공됨.

02/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여성가족부 주관의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 담음

여성가족부(2025.09.16.)

- 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9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여성가족부 주관의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가 담겼다고 밝힘.
- 위여성가족부 주관의 국정과제는 "97.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98.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88.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등 3대 과제임.
- 첫째,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는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경제활동 지원으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둘째,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은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고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역사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셋째,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성장과 위기·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임.

03/ 여성가족부, 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강화

여성가족부(2025.09.22.)

- 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힘
- 국토교통부는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법령을 개정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시설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건설, 전세,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이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한 자립지원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동일한 조건의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04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 시행

여성가족부(2025.09.29.)

- 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결혼중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30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
-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결혼중개업체의 소재 주소지가 도로명까지만 나오던 것을 구체적인 소재 정보(상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까지 공시하도록 했음. 이를 통해 이용자가 업체 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결혼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에 '입국 및 체류' 내용을 1시간 추가(총 6→7시간)하여 결혼중개 과정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음. 이밖에 '소비자보호 방안' 교육 시 표준약관 준수, 유형별 피해사례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교육방식도 강의 외 각 교과별 특성을 살린 실습이 가능토록 했음.

05 성평등가족부 출범

여성가족부(2025.09.30.)

- 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성평등가족부'로 출범함.
- 성평등가족부 개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하여 성평등정책관(기존 여성정책국), 고용평등정책관(신설), 안전인권정책관(기존 권익증진국)을 소속으로 두고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
 - 여성정책국을 성평등정책관(1관 4과)으로 개편해 성평등정책 총괄·조정, 성별 불균형·차별적 제도 개선, 성평등 문화 확산 기능을 보강한다. 또, 고용평등정책관(1관 3과)을 신설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 임금격차 개선,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총괄함.
 - 권익증진국을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성평등정책실 소속으로 편제해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연계·협력 체계 강화함.

06 성평등가족부, 2024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결과 발표

여성가족부(2025.10.23.)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3일(목) 「2024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함
-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종사자, 기관장, 고위직, 학생 등 모든 구성원 참여율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률 99.8%로 전년 대비 0.6%p 상승함.

부산광역시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
양성평등센터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주류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성인지 감수성이란?**
 - 일상과 사회 구조 속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인식하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 무심코 하는 언행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면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것**입니다.
- 성주류화 제도 지원**
 - 성주류화 상설협의체
 - 공공문화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지원
- 성주류화 제도 지원**
 - 양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 지역 특성화 사업**
 - '15분 도시, 양성평등 부산' 워크북 제작
 - 양성평등 문화체험데이
- 양성평등 교육·문화 사업**
 -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 세대 공감 소통 네트워크
 - 성평등 문화 확산 공동포럼

· 문 의 051) 330-3451~5

부산광역시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신청 안내
양성평등센터는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우리 조직의 성평등한 문화 조성에 기여합니다.

- 교육 개요**
 - 교육대상** 부산시 및 16개 구·군 공무원,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 기업 및 시민
 - 교육비** 무료
 - 교육인원** 최소 10명 이상
 - 교육방법** 기관방문교육
 - 교육내용** 기본과정, 특화과정, 심화과정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집 개요**
 - 신청기간** 4월 ~ 10월
 - 신청방법** QR코드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이메일 제출

· 문 의 051-330-3455

QR코드:  **←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신청하러 가!!!**

· 문 의 051) 330-3451~5

우리 SNS 친구 해요!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www.instagram.com/bgli_official/

 www.facebook.com/bgli01/

Like it!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 '이젠 센터'



젠더범죄예방 사업실

- ◆ 민간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대응 전담창구 운영
-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긴급, 임대)
- ◆ 통합지원창구 운영 (자치경찰관 배치)
- ◆ 지역 유관기관 종사자 소진방지·역량강화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 ◆ 디지털성범죄 피해신고 접수
- ◆ 피해자 통합지원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 상담지원(법률, 수사, 의료 등)
 - 심리치유 프로그램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

- ◆ 365일 24시간 전화 및 온라인 상담
- ◆ 현장출동, 긴급구조
- ◆ 피해자 임시보호
- ◆ 기관 연계, 정보 제공 등

지원 및 신청문의 : Tel 051)1366 / 051)802-2082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45(범전동 381)

